

5/15(금) 소설 '동백꽃'의 서술자를 소설 속 작가로 바꾼다면? (전지적 작가 시점)

▼ 주의: 소설 '동백꽃'의 두 주인공은 여러분보다 더 큰 열일곱 살입니다. 우리 함께 열일곱 살 두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감상해 봅시다.

* 필수항목

서술자를 파악하며 소설 감상하기 단원

관련 교과서 단원: 1. 문학의 눈 (2) 이야기 속 시선 (교과서 26쪽 ~ 45쪽)

1. 학번, 이름 *

예) 20115 홍길동

<핵심 이론 정리>

- 소설 속의 '서술자': 소설 속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야기(서술)해주는 사람.
- 시점: 서술자의 위치
- 원래의 소설인 '동백꽃'의 시점은 '1인칭 주인공 시점'이었습니다.
- <전지적 작가 시점>
소설 속의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함.(실제 작가 아님. 소설 속의 작가임.)
소설 속의 작가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말, 행동, 생각, 속마음 등 모든 것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.
소설 속의 작가는 이 소설 속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. (전지全知: 모든 것을 다 안다.)
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등장인물이 아니므로 '나'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음.

2. 질문1. 서술자를 소설 속의 '전지적 작가'로 바꿔서 소설을 써봅시다. (열 줄 이상 적어 보세요.) *

(전체 줄거리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. 쓰고 싶은 부분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.) (전지적 작가 시점) (예시) 점순이는 요즘 들어 덕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. 작년까지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올해는 겨울 동안 빌려다 읽은 연애 소설 때문인지 아랫집에 사는 열일곱 살 동갑내기 덕수가 연애 상대로 보이기 시작했다. 점순이는 덕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. 점순이는 덕수를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. 어떻게 친해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울타리를 고치는 덕수를 보며 엄마 몰래 감자를 굽기 시작했다. '감자야 맛있게 구워져라. 우리 덕수 배고플 텐데 얼른 구워져라.' 점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.

3. 질문2. 남녀 주인공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전지적 작가가 들려주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? *

전지적 작가 시점의 매력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.

4. < 오늘 수업을 마치며 > “오늘 수업에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?” (※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.)

(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나요?)

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.

Google 설문지